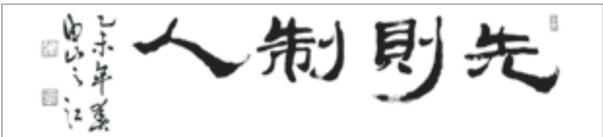


■ 고사성어 ⑩



선즉제인 (先則制人)

선손을 쓰면(선수를 치면) 남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

진(秦)나라 2세 황제 원년(元年:B.C. 209)의 일이다. 진시황(秦始皇) 이래 계속되는 폭정에 항거하여 대택향[大澤鄉:안휘성 기현(安徽省 蕪縣)]에서 9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쫓겨난 날팜팔이꾼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은 단숨에 기현을 석권하고 진[陳:하남성회양(河南省淮陽)]에 입성했다. 이어 이곳에 장초(張楚)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위에 오른 진승은 옛6개국의 귀족들과 그밖의 반진(反秦) 세력을 규합하여 진나라의 도읍 함양(咸陽)을 향해 진격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강동(江東)의 회계군수(會稽郡守) 은통(殷通)은 군도(郡都) 오중[吳中:강소성 오현(江蘇省 吳縣)]의 유력자인 향량(項梁)을 불러 거병을 의논했다.

향량은 진나라 군사에게 패사(敗死)한 옛 초(楚)날 명장이었던 향연(項

燕)의 아들인데, 고향에서 살인을 하고 조카인 적(籍:항우(項羽)의 이름)과 함께 오중으로 도망은 뒤 타고난 통솔력을 십분 발휘하여 곧 오중의 실력자가 된 젊은이다.

“지금 강서(江西:안휘성·하남성)지방에서는 모두들 진나라에 반기를 들었는데, 이는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코자 하는 시운(時運)이 되었기 때문이오. 내가 듣건대 ‘선손을 쓰면 남을 제압할 수 있고(先則制人)’ 뒤지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後則人制)했오. 그래서 나는 그대와 환초(桓楚)를 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일으킬까 하오.”

은통은 오중의 실력자일 뿐 아니라 병법에도 조예가 깊어 향량을 이용, 출세에 실마리를 잡아볼 속셈이었으나 향량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거병하려면 우선 환초부터 찾아야 하는데, 그의 행방을 알고 있는 자는 오직 제 조카인 적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밖에 와 있는 그에게 환초를 불러



경북 영주생 김교공파 34세 -의력- 개인전4회, 초대그림전2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회 원장

오라고 하명하시지요.”

“그렇시다. 그럼, 그를 들라 하시오.” 향량은 뜰 아래에 대기하고 있는 향우에게 다가가 귀엠탈로 이렇게 일렀다.

“내가 눈짓을 하거든 지체 없이 은통의 목을 치도록 하라.”

향우를 데리고 방에 들어온 향량은 향우가 은통에게 인사를 마치고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 눈짓을 했다. 향우는 칼을 빼치마자 비호같이 달려들어 은통의 목을 쳤다. 향량과 향우가 은통에 앞서 ‘선즉제인’을 몸소 실행한 것이다.

향량은 곧바로 관리를 접거한 뒤 스스로 회계 군수가 되어 8000여 군사를 이끌고 함양으로 진격하던 중 전사하고 말았다. 뒤이어 회계군의 총수가 된 향우는 훗날 한왕조(漢王朝)를 이룩한 유방(劉邦)과 더불어 진나라를 멸명시켰다(B.C. 206). 그러나 그후 유방과 5년간에 걸쳐 천하의 패권을 다투다가 패하여 자결하고 말았다(B.C. 202).



소년이로 학난성 (少年易老學難成)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말.

이말은 남송(南宋:1127-1279)의 대유학자(大儒學者)로서 송나라의 이학

(理學)을 대성한 주자(朱子:朱熹)의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 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시의 첫 구절이다.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렵다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로 학난성)] 순간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 불가경)] 연못가의 풀꿈이 채 끊도 깨기 전에 [未覺池塘春草夢(미각지당 춘초몽)]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린다 [階前梧葉已秋聲(계전오엽 이추성)]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⑭

동백나무(冬柏)

■ 靑南 權寧漢 (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지금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나, 농경이 모든 산업과 생활의 근간이었고 자연과 더 밀착해서 살던 옛날 사람들이, 밭당의 숲 속에서 계절을 잊고 사는 현대인보다 더 봄을 애타게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봄은 늘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 조바심을 주며, 다가오는 듯하다가 멀어지고, 멀어가는 듯하다가 다시 다가와서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을 몹시 초조하게 합니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동강이 풀린다는 우수, 경칩이 지나가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 이제 봄이구나 했더니, 웬걸! 갑자기 전국을 다시 꽁꽁 얼어붙게 하는 추위가 몰아치고, 폭설이 내리서 봄은 영영 오지 않을 듯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바심 속에서도 봄이 오고 있다고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겨우내 함께 봄을 기다려 오던 우리 집 동백꽃망울이 터질듯 부풀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동백나무는 동남아시아의 난대 지방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록 교목이며, 우리나라에는 남해안 지방과 남쪽 도서 지방에 자생하고 있고, 특히 오동도의 울창한 동백 숲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기후가 좀 더 따뜻한 일본에도 동백이 있으며, 그들도 동백을 매우 사랑하는데, 일본말로 동백을 ‘쓰바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동백의 개량 품종을 만들어서 애원했는데 무려200여 가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르는 대부분의 품종은 일본에서 개량 육성한 것들입니다. 유럽으로는 약 200년 전에 건너갔으며, 서구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1800년 후반기에는 유럽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유행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극작가)의 소설 춘희에 등장함으로써 동백은 한층 더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 속에서도 타는 듯 붉게 피는 동백꽃은 모두가 좋아하는 봄꽃이지만, 특히 시인 묵객들은 더욱 이 꽃을 좋아해서 동백을 그림으로, 글로, 시로 나타내어 왔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원(田園)시인을 도연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근세 전원(田園)시인의 으뜸은 아무래도 신석정 씨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 외에도 동백꽃을 우리 가슴에 깊게 심어 준 것은, 한때 크게 유행했던 가수 이기찬 씨의 ‘동백 아가씨’라는 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애절한 노래는 모르는 이가 별로 없고, 이 노래만큼이나 동백도 또한 잘 알고 많이 사랑 받는 꽃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백은 교목성 나무이고, 큰 나무는 그 키가 5-8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꽃은 3-4월에 피고, 원래는 꽃잎이 다섯 장인 홀꽃이 기본이나 지금은 개량된 겹꽃이 더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약알 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므로, 산성 토양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나무를 태운 재를 주거나 석회를 주어서 토양의 산도(酸度)를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눈의 형성은 7-8월에 이루어지므로 꽃이 필 만큼 크게 자란 나무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두고, 여름철에는 마르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비료로는 깻묵 등 유기질 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에는 밀선이 잘 발달되어서 꽃이 많고, 진하고 아름다운 꽃색은, 이른봄, 삭막한 겨울 풍경만 보아 오던 사람들 가슴에 보석보다 더 값고 아름다운 정감을 일깨워 줍니다.

눈 속에 피는, 피보다도 더 진한, 동백꽃이 지기 전에 파도 소리 출렁이는 오동도에 가서, 그 정열의 꽃을 구경했으면 좋으련만, 생활이 우리를 엮어매기에 화



분에 핀 동백꽃이라도 보고, 이 한 송이 동백 속에 무한한 자연의 뜻을 읽을까 합니다. 동백꽃에는 애절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

니다. 옛날 한 나라에 포악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에게는 다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맞아, 세자로 삼아야 할 터인데도 욕심 많은 왕은 아무에게도 왕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천년만년 자기 혼자 왕 노릇을 하려고 기회만 있으면 동생의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동생은 이 일을 알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몰래 탄 곶에 숨겨두고, 양자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동생 집에 달려가서 양자 둘을 죽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생이 진짜 아들을 몰래 숨겨 두었다는 말을 듣고, 기어이 두 아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왕을 속였다는 벌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왕자는 가짜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바라는 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왕이 시킨 대로, “두 왕자는 가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칼을 주며, “두 가짜 왕자를 네 손으로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칼을 받아든 동생은 차마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만 그 칼로 자기 가슴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피를 흘리고 죽자 두 왕자들은 두 마리 새로 변해서 하늘로 날아갔고, 그 날개 소리가 점점 커져서 천둥소리로 변해더니,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져 궁궐은 쑥밭이 되고 왕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큰 동백나무로 변했습니다.

하늘로 날아간 두 마리 새는 다시 내려 동백나무 가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새가 바로 동백새입니다. 동백새는 백안작(白眼雀)이라고도 하며, 등은 녹색이고 날개와 꼬리는 녹색이며 배는 흰색인 참새보다 약간 작은 새입니다. 눈의 둘레가 은백색인 것이 특색이며, 울음 소리가 아름다우며 한국, 일본 등에 분포하는 텃새로서, 산기슭이나 잡목림에 삽니다.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나의 인생 motto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동안에 나는 여러 가지 motto(motto 좌우명)를 내세웠다. 우강 에세이에서 나는 인생 motto를 심심치 않게 소개해왔다. 이 시점에서 이들을 종합하여서 적어보기로 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들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세상을 하직할 때에는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웃으면서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나의 인생 motto의 대명제이다. 이 대명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인생 motto를 만들어 보았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이며, 또 연극인이다.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1565-1597) -‘비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1597) 등 37편의 희곡과 여러 권의 시집을 남기고 있다.

특히 ‘맥베스’(Macbeth, 1605-1608) ‘햄릿’(Hamlet, 1601) ‘오셀로’(Othello, 1603-1604) ‘리어왕’(King Lear 1605-1606)은 그의 4대 비극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운율(韻律, 리듬)을 원칙으로 하는 운문대사(韻文台詞)가 특징이다. 세 음절과 네 음절이 되풀이되는 율조(律調) 즉 삼사조(三四調)가 중심이 된다. 그의 운문대사 중에는 음미해볼만한 것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리어 왕이 글로스터 백작을 설교하는 대사가 나에게서는 대단히 감동적이다. “참아야 해, 우리는 울면서 여기 왔어, 알다시피 공기 법새를 처음으로 말았을 때 앙양대며 울었어, 내 설교 잘 들어라: 이 대사 중에서 “우리는 울면서 여기 왔어”(We came crying hither)라는 문구에 나는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 우리들은 ‘오양오양’ 울면서 이 세상

에 태어났다. 이 대사가 오고 갈 때 리어 왕은 광인(狂人) 상태의 눈 뜬 잠남이었고, 글로스터 백작은 눈알이 빠져 앞을 못 보는 잠남이었다. 앞으로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람이 보람을 찾으면서 사는 경우를 높이 평가한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않지만 죽는 날까지 보람을 느끼는 나날을 보냈으면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몇몇 선현들의 말씀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를 로부터 나의 인생 motto를 부분적으로 끌어내기도 하였다. 다음에 나의 인생 motto를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 만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생(生)·노(老)·병(病)·사(死)를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이들을 원망하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사는 보람을 포기하는 결과만이 기다리게 된다. 삶·늙음·질병·사랑은 반드시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상책이다. 불교는 인생을 생·로·병·사의 연속이라고 하고 있다.

둘째: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나는 항상 ‘이 순간’을 값진 것으로 생각한다. 순간이 모아져서 날이 되고 날이 축적되면 인생이 된다.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다. ‘순간’이라는 중요성을 인정하면 삶을 값지게 보낼 수 있고 결국 사는 보람을 맛보게 된다. 나는 가끔 “금이 있는데 어떤 금이 제일 중요하냐”고 묻는다. 대부분이 ‘황금’·‘순금’·‘백금’ 등이라고 답한다. 옳은 답이다. 그런데 진짜 중요하고 값진 금은 ‘지금’이다. 일일 시호일(日日是好日)이라는 말이 있다. 순간을 중요시하면 그 하루가 기쁘게 되고

대단히 가치 있게 된다는 말이다.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셋째: 도움을 받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다. 반드시 부모·부(夫) 또는 부(婦)·형제·스승·친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소·돼지 등 동물들의 도움을, 쌀·배추를 비롯한 여러 식물의 도움을, 물·공기를 비롯한 자연 계로부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어려서부터 걷는 습관을 만들라.

나는 어떤 셈이였는지 1960년대 ‘가족 계획연구’ 덕분에 10년 동안 승용차를 탔었고 그 후에는 관리직에 머물러 공용차를 탔던 까닭에 자연히 걷는 습관이 없어지고 걷는 습관을 잊게 되었다. 제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 젊어서부터 걷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인생은 습관이다. 늙어서 후회해 보아야 쓸데없다. 늙기 전에 걷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요사이는 의도적으로 걸으려고 하여도 다리가 약하고 숨이 차서 여의치 않다. 다리가 좋지 않으니 사람이 게을러진다. 그러나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다. “인생은 습관이다”라는 말을 뒤늦게 존중하게 됐다. 그러나 이미 뒤늦은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걸어야 했다.

다섯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나는 나이 들어서 인생의 목적이 남을 배려하는 데에 있다고 자각하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 하버드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교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엇(Charles William Eliot, 1834-1926)제 21대 총장의 덕분이다. 그는 1869년에 부임하여 1909년에 퇴임할 때까지 40년간 총장직에 있었으며, 그 동안에 1개의 지방 전문대학이었던 학교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교로 바꾸어 놓았다. 이일식 때 그가 남긴 말은 유명하다. ‘학생들이여,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도 이 말에서 motto의 하나를 얻었다.

### 健忘症을 退治하는 6가지 方法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진다. 하지만 뇌를 잘 이해하면 기억력을 보존할 수 있는 해답이 보인다. 뇌 양쪽에 있는 ‘해마’가 핵심 키워드. 직경 1cm, 길이 10cm 정도의 오이처럼 굵은 해마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모두 저장된다. 하지만 해마의 뇌 신경세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해, 20세 이후엔 그 속도가 급격 빨라진다.

1. 뇌혈류 증가=걷기  
미국 일리노이대 의대 연구팀이 평균적인 뇌 크기를 가진 사람 20명에게 1회 1시간씩, 1주일에 3회 빨리 걷기를 시키고, 3개월 뒤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의 활동상태를 조사했더니, 자신의 연령대 보다 평균 세 살 어린 활동력을 보였다. 연구팀은 걷기 운동을 하면 운동 경주가 자라듯 뇌 혈류가 두 배로 증가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동영 교수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면 뇌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 줄어 뇌가 훨씬 복합적이고 빠른 활동을 수행해 낼 수 있다. 이런 운동은 장기적으로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 기억 수용체 자극=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의대 연구팀은 하루 1-2잔의 와인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뇌에는 NMDA라는 기억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것이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건국대병원 신경과 한성희 교수는 “소량의 알코올은 NMDA를 자극할 뿐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도 좋게 한다. 특히 적포도주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 파괴도 동시에 막아줘 기억력을 증대시켜 준다. 그러나 하루 5-6잔 이상의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뇌세포를 파괴시켜 기억력을 감퇴시킨다”고 말했다.

3. 중추신경 흥분제=커피  
프랑스국립의학연구소 캐런리치 박사가 65세 이상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4년동안 연구한 결과, 커피를 하루 세 잔 이상 마신 그룹은 한 잔 정도 마신 그룹에 비해 기억력 저하 정도가 45% 이상 낮았다.

캐나다 오타와대 연구팀이 1991~1995년 4개 도시 6,000여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카페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31%가량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고재영 교수는 “커피의 카페인은 성분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뇌의 망상체(의식 조절장치)에 작용해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 이달의 詩

## 봄(春)

문을 열자  
분홍빛 한아름 날아들었다  
가벼운 날갯짓 소리소리  
여기 저기 구석구석  
물소리 높여 목욕하는 산과 들  
파스텔 빛으로 갈아입는다  
노랑병아리 빛 개나리와  
수줍은 진달래의 화사함에  
능수버들 실눈 뜨며 유희하고  
앞산 뒷산  
핑크빛 입맞춤이 부끄러워  
살짝 얼굴 붉힌다  
황홀한 봄. 봄 (편)

### 신간안내

## ‘토박이 마을과 땅 이름’

### 권순채 씨 발간

토박이 마을이 좋아 농사를 지으면서 보고 들은 마을과 땅 이름을 조사 연구한 ‘토박이 마을과 땅 이름’이란 책이 지난 2월28일 한국신춘문예협회(刊, p300)으로 향토연구가 권순채(權純采·사진)씨가 발간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옛날부터 전해오는 토박이 땅 이름이 있다. 또 사람이 살았던 곳이거나 거쳐간 흔적이라도 있는 곳엔, 거기에 따른 땅 이름이 있게 마련이다. 사라져 가는 땅 이름을 찾아내기 위해 산천의 구석구석 헤매는 일은 말할 수 없는 고됨이 있었다. 그러나 발견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역사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더 할 수 없는 기쁨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책은 토박이 땅 이름과 동계나무는

저자가 살고 있는 경주군 내남면과 경주시 옛 탑정동과 (현)황남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것들을 한데 묶은 것이다.

한편 권순채씨는 경주 내남면 망성리에서 태어나 제2회 전국농산물품평회에서 유기 농산물부 특상,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수필부분), 자유문학 민초시 부분2회 추천안료(2014년), 경주지방의 땅 이름, 전설, 방언, 노거수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토박이 마을과 땅 이름’ 5권이 있다.

연락처:(054)748-3727(자)  
(권오복 편집위원)